

유틸리티

요금 인상 외에 규제 변화도 필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지연

이번 20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2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이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지연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16일에 산정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내역이 확정될 경우 결과 회신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금인상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19일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연료비연동제 규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 흡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1주 이상 지연되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사채발행한도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으로 급한 불 끄기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사채발행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한국 전력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이 직접 투입되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 현실화를 지연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연동제만으로 어렵다면 요금 규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

연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강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는 하반기다. 연료비 연동제에서 허용한 요금 인상 범위가 비용 변화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면 규제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존 조정단가 최대 인상폭 3원/kWh과 기준 연료비 대비 상한 5원/kWh은 현재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수치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Update

Neut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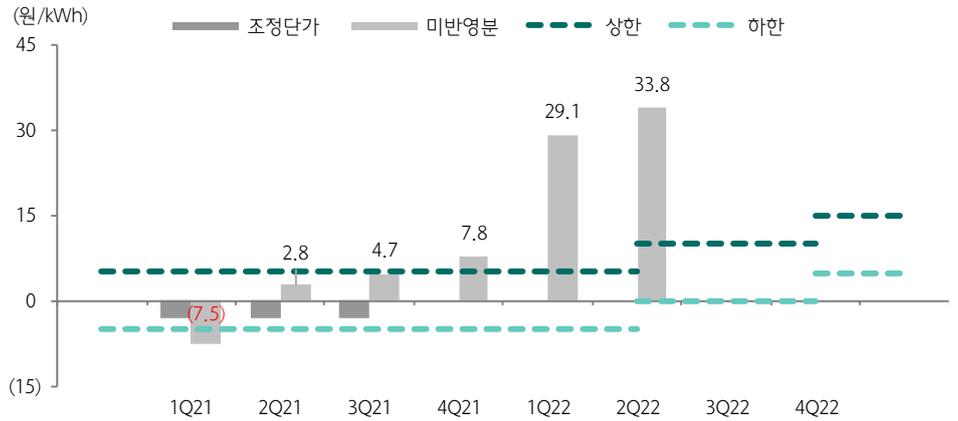


Analyst 유재선
02-3771-8011
jaeseon.yoo@hanafn.com

RA 위경재
02-3771-7699
kyungjae.wee@hanafn.com

그림 1. 분기별 조정단가 및 미반영분 추이

2Q22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3Q22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지연
 10월 기준연료비 4.9원 인상 예정



자료: 한국전력,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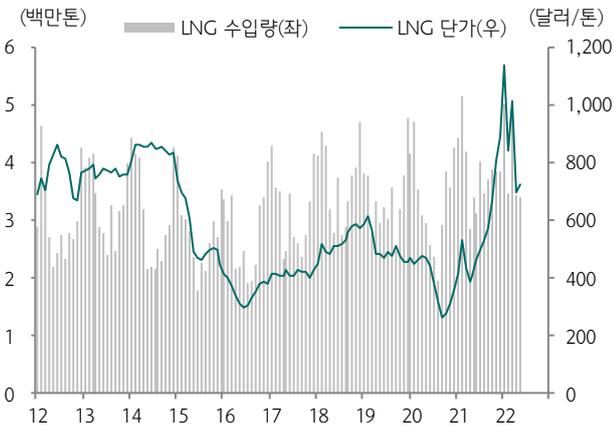
표 1. 기준연료비 조정 - 2022년 연간 총 9.8원/kWh 인상 (4월/10월 각각 4.9원/kWh씩 반영)

(단위: 원/kg, %)

	유연탄	LNG	BC유
2019년 12월~2020년 11월	120	504	419
2020년 12월~2021년 11월	145	608	550
증감률	20.6	20.7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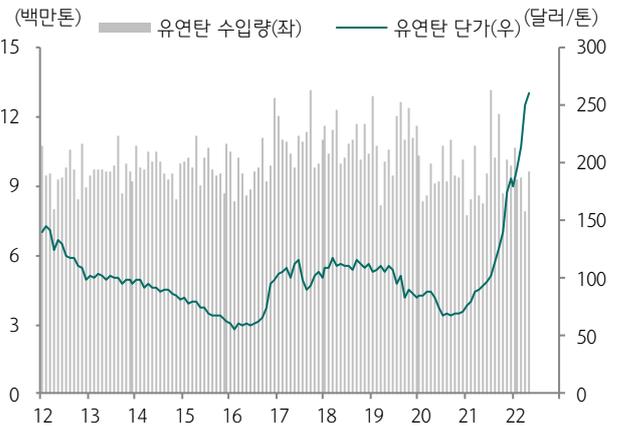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금융투자

그림 2. 국내 LNG 수입량/단가 (5월 YoY +0.4%/+78.3%)



자료: 무역협회,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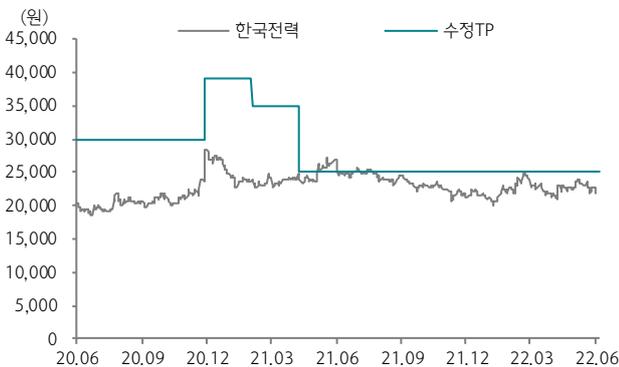
그림 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5월 YoY +17.1%/+179.7%)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한국전력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1.4.29	Neutral	25,000		
21.2.22	BUY	35,000	-32.51%	-29.29%
20.12.18	BUY	39,000	-35.61%	-28.08%
20.5.8	BUY	30,000	-30.57%	-13.33%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매도)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04%	4.96%	0.00%	100%

* 기준일: 2022년 06월 18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2년 6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2년 6월 2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